

[소그룹 나눔지]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!

본문: 잠언 10:11-20

1. 서론: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

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'나'를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이자, 생각과 행위의 중간 단계이며,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입니다.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영적, 인격적 위치를 가늠해 보고,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를 배워 '의인의 언어'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.

2. 내용 질문 (성경 본문 및 설교 이해)

- **질문 1:** 본문 11절에서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각각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? 이 비유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?
- **질문 2:** 12절에 따르면 '미움'과 '사랑'은 공동체 안에서 각각 어떤 결과(다툼 혹은 허물 덮기)를 가져온다고 말하나요?
- **질문 3:** 20절에서 의인의 혀를 '순은'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 (말의 가치와 정제 과정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.)

3. 나눔 질문 (삶의 성찰과 고백)

- **질문 1:** 지난 한 주간 나의 말은 누군가에게 '생명의 샘물'이었나요, 아니면 따끔한 '독'이었나요? 내가 내뱉은 말이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었는지, 아니면 위축되게 했는지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.
- **질문 2:** "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(19절)"는 말씀처럼,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내뱉었다가 후회했던 경험이 있나요? 그때 내가 '입술을 제어'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

4. 실천 사항 (이번 주 결단)

- **실천 1 [침묵의 훈련]:** 감정이 격해지거나 말이 길어질 것 같을 때, 3초간 멈추고 기도하며 입술을 제어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.
- **실천 2 [순은의 한 마디]:** 이번 주, 가족이나 동료 중 한 명을 정해 그를 살리고 격려하는 '가치 있는 말(순은 같은 말)'을 구체적으로 한 번 이상 전하겠습니다.

5. 기도 제목

-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,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살리는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소서.
-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'피스 메이커 (Peace Maker)'가 되게 하소서.
- 내 입의 말이 요란한 소음이 아닌,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묵직하고 가치 있는 말이 되게 하소서.

6. 결론: 지혜의 시작은 입술을 제어하는 것

지혜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구사하는 능력이 아니라, **내 입술을 스스로 다스리는 힘**에서 시작됩니다. 말이 많아지면 허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. 이번 한 주,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'살리는 말, 화평의 말, 가치 있는 말'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인의 길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.

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흰돌교회